

아침을 맞기까지

최 형 훈(71동기)

새벽이었다.

흔 눈으로 밤을 보낸 후라서 잠시 후에 맞게 될 아침이 무척이나 기다려졌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서, 일주일의 생활을 무척 절제하여 지내다보니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 새벽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주일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 때문이다. '천국인 금요일'이기도 하다. '금식'이란 내내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어릴 때부터 삼 시 세 개 꼬박꼬박 챙겨먹던 본능적인 습관을 참아 내가며 무엇이 집중하는 '일'이 몇번이나 있었을까? 지난해 '낙도 단기선교'에 참여했을 때에도 '추봉도의 누구는 밥도 많이 먹더라!'라고 근처 섬에서 같이 사역하는 동지들에게까지 소문이 났던 나의, 결코 '굶을 수 없는 내력'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다. '흔' 술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소복씩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식구처럼' 부친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고 기도하라'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외침이 나를 벌겋게 뜬 눈으로 깨어 있게 했던 것이다. 새벽예배 때는 대부분 찬송을 크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 얼마 없는데 너무 될까봐서, 목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이다(예 주위를 의식하는지). 하지만 크게 불렀다. 주일 성향에 맞춘 태도를 생각지 않고 말이다. 부르다가 가끔 '꺼야!' 하는 쇠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마음이 편했다. 싸늘한 새벽시간인지라 말씀 듣기에도 집중이 잘 되었다. '주여, 아버지' 하는 안타까운 외마디 절규와, '아멘' 하는 우렁찬 소리가 예배당을 잔잔히 울릴 때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참말로!"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도 믿음생활의 한 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생활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그런 생활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지금 무엇이를 위하여 구하고 있나? 무엇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 젊은날에 많은 것들로 인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험잡은 허연 '새치' 만을 남길 뿐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참고서 삼고, 거울 삼을 때는 고된한 것에 대한 유익한 해결책을 얻는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추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무슨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나를 생각해 보았다. 아무 이유와 죄를 발견치 못한 저 빌라도처럼 상황에 밀려, 두려움을 느껴 '에라. 모르겠다.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는게 편하겠다. 내게 잘못을 묻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이유 때문이었다. 아니면 형식적이고 '체·제'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이유인가? 그것도 아니면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란 말처럼 알면서 모른 척하며 자은 여러 죄 때문인가? 혹 '뭘 묻은 아무개가 재 묻은 아무개 나무란다'는 말처럼 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한 그런 이유에서인가. 어느 것 하나 제할 것 없이 모두 나의 모습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죄인 줄 알면서 범죄하고, 믿음생활을 형식적이고 이기적으로 했음을 늘 부인할 수 없었다. 욕심이 적지 않은 일은 없었고, 죄를 가릴 만한 어떤 방법도 없었다. 이렇게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 깨우치고 가르치시기에 충분한 새벽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나오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오늘 하루 만큼은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고 남을 위한 기도만 해보자는 것이다. 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려 하면 어느새 나의 입은 다시 나의 필요를 위해 말을 하고 있었다. 이럴 줄이야. ♪ 진정 난 몰랐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한 기도를 해왔는지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됐다. 모든 인간을 위해 대신하시고, 대표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묵상하며 맑은 아침을 맞는다.

1998년 4월 10일 아침에.

5월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

김 회 영(72동기)

두꺼운 스웨터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봄.

그 중에서도 5월의 봄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동경하는 봄중에 봄일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애환함을 안겨 주는 달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한 5월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갖고 계셨기에 우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늘 부족했다. 특히 아버지는 근엄하시고, 자식들에게 미소, 웃음에 인색해서 당선길에 다가가기를 늘 두려워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와와의 대화는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대화였을 뿐이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인데 나는 아버지에게 농담도 하고 안기기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렇게 엄하시고 다스리기 어렵던 아버지의 눈계만 보이는 두 어깨가 요즘은 편지 점점 작아져가는 것을 느낀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육신을 바라보실 아버지. 직장에선 댕깁이라고 소문이 나실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쓰시던 아버지의 까만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입증하듯 흰 머리가 까만 머리를 덮어버릴 만큼 무성해졌다. "아버지, 열세 줄 하세요." 그렇게 흰 줄어보일수록엔! নিজ이 말씀을 전제면 아버지께서는 피식하고 쓴웃음을 지으셨다. 며칠전 아버지 뺨뺨을 가져와 웃상에 넣으려 했었는데, 옷의 색깔들이 너무나 적직하고, 나이가 들어보이는 아파 뺨뺨 동안 입에서 뉘어진 웃음을 발견하고 가슴 한 곳이 미처졌다. 그 길로 웃아가며 달려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옷을 발을 사왔다. 그 날 저녁 아버지께 그 옷을 슬며시 내미니 아버지께서 헛웃기나며 필적보셨다. "이건 너희들이나 입는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걸 입나?" 하시며 뉘둥생나니 주저하는 것을 한참 입어보시라고 강요만, 설득 반하여 입으시도록 했다. 요즘은 그 옷을 집에서 자주 입고 계신다. 사실 요즘 입기에는 너무심텐데. 예전에 물렸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요즘 들어 발견곤 한다.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던 아버지의 뒷모습, 자식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아버지라는 높은 벽은 점점 낮아져간다는 것일까.

아버지 결에서는 가을 뱃새가 난다. 봄의 신선하고 산뜻함에서 여름의 폐기와 열정의 강을 지나 이제는 가을의 완숙함과 휴식의 공간으로, 때로는 절대 고독감으로 치달으려는 움직임일까? 조금은 약해지시는 아버지 어깨가 이 둘째 딸은 안스럽기만한..... 아버지에 대한 말조차 건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미워질 때가 있다. 이제는 그러한 아버지의 어깨에 작고 약하지만 날개가 되어 힘입어 되어 드리고 싶다.

사건들을 정리하다가 그때 졸업식인 아버지와 찍은 다소 어색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조금은 어우리고 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가족들을 위해 설렘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자 때로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들리기까지 일하셨을 아버지, 자식을 앞세운 힘든 일이 있으셨고 내색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요즘 패인 눈가의 주름이 아버지의 인생 여로를 이야기해주는 듯하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난마다 기도드리리라.

"나의 진부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아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선 그분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 가장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1998. 4. 17. 금, 춘천

김 정 민(70동기)

퇴근시간이 조금 지난 지하철 안이다. 우연히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하얀 바지에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아이는 10~11세 정도로 보인다. 아이는 열로 물들지 않아 어머니 머리를 부지런히 휘적인다. 왜 그녀나 살펴보니 젊은 어머니 머리에서 새치들을 뿜고 있는 것이었다. 작은 손을 놀리며 어머니 머리를 휘적이는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

문득 지하철 타기 전 시장에서 만난 장애인이 떠올랐다. 진경이와 같이 퇴근하는 길이었다. 시장통로에서 하반신을 쓸 수 없어 거의 앞으로다시피한 모습으로 바구니를 밀며 가는 소마비 장애인을 만났다. 좁은 골목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무심한 마음으로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지나칠 수 없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 사건은 골목으로 택시가 지나가다 멈추었다. 젊은 여자가 내려더니 아저씨 바구니에 동전을 넣고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난 명하니 바라만 보았다. 두번째 사건은 같이 걸던 진경이가 없어졌다. 뒤돌아 보니 장애인 아저씨 옆에서 있는 것이다.

"아저씨 아직도 안 들어 가세요?"

"이제 들어가요."

"아저씨 저 기억 못하시죠? 저 아저씨 아는데"

"나도 알아요."

"집에 어떻게 가세요?"

"차가 요요."

"내."

진경이는 헤어질 후 내게 다가왔다. 잠실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자기 가게 앞에 매일 있던 아저씨였다. 그러면서 진경이는 "저 아저씨 결혼도 해서 아내와 자녀가 2명이나 있어. 그리고 저 아저씨 주일에는 교회에 간다네. 그래서 주일에는 일 안한다"

진경이와 헤어질 후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웠다. 난 크리스찬이라고 사무실에서 내일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진경이는 비크리스찬이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내용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나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혹이나 동정이라는 것을 했으면 했지!

'부끄럽다.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다.'

부활절 찬양예배를 드리고

그 정성과 열심 그대로

김영은
(집사, 가브리엘찬양대)



“**십**자가 상에다 못박아 죽여라,
십자가 상에다 못박아 죽여라.”

찬양이 계속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은 뛰고, 눈물에, 콧물에 ...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4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시간의 찬양회교 본당은 마치 빌라도의 법정을 연상케 하였다. 온 회중들과 성도, 찬양대원, 지휘자, 반주자 모두 가슴 찡한 감동과 체험을 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친 장본인처럼.

정말 수많은 찬양을 드렸지만 이번 부활절 찬양은 내 생애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사실 연습을 하면해도 제대로 곡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박자가 빠른 곡인데 하다가 틀리지 않는 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께서 목요 연습 30분 전에 베이스 파트만 따로 개인 레슨(을 시키기) 방법을 제시하셨다. 요즘 같은 IMF 시대에 사립이나 직장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땀을 흘린 베이시 김사님들이 많이 모이었고, 멀리 인천, 일산, 양평, 군포, 시흥 심지어는 충남 옥천에서까지 연습을 위해 달려 나오는 대원들의 정성은 하늘 보좌를 울

적였을 것이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무사히 찬양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모이기에 힘썼다. 또 음악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굴복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다.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다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우리의 소리와 마음을 묶게 하셨다. 거기에 낭송을 맡은 자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예수님을 못박는 소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했고, 온 회중이 함께 부른 “예, 주여 다르겠나이다”는 우리의 결심을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제 부활절은 지났다. 지금까지 했던 그 정성 그대로, 그 열심 그대로, 매 주일 아침 6시 새벽가사를 달려나와 준비된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찬양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부흥 성장하여 찬양대로 인하여 1부에도 성도의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끝으로 연습 시작한 지 석 달만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고하신 대장 장로님 이하 모든 임원과 대원들 그리고 가브리엘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교역자수련회 하고

교역자수련회 그 정겨움

김인식
(목사, 15교구 지도)



새로운에 대한 설레임은 아니나 어
른이나 구별이 없나 보다. 마치
소풍 떠나기 전날밤 개구장이의 가슴에
일어나는 파문은 이 나이의 목사 가슴
에도 여전히 일고 있다.

세계(世界) 물랑의 강남을 벗어나
광주 경계에 들어서고 기도원에 발을
딛고 서니 벌써 경기가 틀린다. 이미 영
간(난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이 빛나
고 피곤함은 벗어나고 새로운 기운이
영향을 감한다. 버스에서 바 내리는 동
역자들의 저마다의 눈빛엔 사랑과 격려
가 서려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러하겠지만, 교역자로서 인제나 영적
전투의 선두에 서게 되는 까닭에 쉽게
기절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가
장성 때문에 이런 수련회는 영적 재충
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가 모
두들의 가슴에 공통되게 서려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위임목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신 자리를
발견하고 차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적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은
“지금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적 아니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는 것이다. 그런
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의 행위
대로 하시기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
심으로”,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

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감당케 되었다
는 말씀을 들을 땐, 무릎을 치면서 하
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원로목사님은 하나님의 종들
은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하며 어떤 형
편에서건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수고는 잊어버리고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교역자가 되라는 귀한 교훈을
주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역자
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삼고, 모
범으로 따르며, 소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모두들 손에 손을 맞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
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
졌다. 찬양과 설교에 감동적 영향을 미
칠 말씀, 복식 호흡법 강의를, 구속사
적 성경관을 통해서 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강의, 남녀 교역자가 연합
하여 운동장에서 고향 지리며 농구를
하든지 또한 신체감을 확인한 시간, 그
리고 다릴타 꽃대들, 등나무 꽃대들
가득한 벤취에 앉아 서로를 격려하며
나누는 대화의 정겨움 속에 그리스도
말미암는 사랑은 더욱 새로웠다.

소책자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이른 아침까지의 지지침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온갖 아
름다운 추억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버
스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꼬박꼬박리는 K
목사님, P 전도사님의 어깨 위엔 정겨움
이 가득하다.

신앙상담

통일교



정헌민
(목사, 16교구·강변부·
법조인전도회·도사정책회 지도)

통일교의 창시자이며 교구인 문선명은 1920년 평
등 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나이
열살 되던 해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장로교 교인들이 되
었습니다. 그후 그의 나이 16세 되던 해에 기도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
한 과업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는
오직 문선명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선명은 예수의
큰질긴 강요에 못지 못해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리강론

통일교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원리강론은 성경의 권
위보다도 앞서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이들은

원리강론을 완성된 언약으로 믿고 있습니다.

1. 창조론

통일교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상은 이원
론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음과 양, 영과 육, 모든 존재들은 각
기 이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
주 문선명만이 남성과 여성의 성격 모두를 가졌다고 합
니다.

2. 인간의 타락 및 회복

원리강론은 그것을 두 종류의 타락, 즉 육체적인 타
락과 영적인 타락을 가르칩니다. 그 모든 타락들은 성
적상 성적인 타락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와는 루시퍼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후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아담과 또
다시 성 관계를 맺음으로써 육체적으로 타락하였다고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타락이 이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또한 이원론적으로, 즉 육적인 구
원과 영적인 구원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회복
방법은 문선명을 통한 “피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예
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비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였으
나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

서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으며 그 사역
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하고 증거하고 있
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4. 재림관

원리강론은 재림주는 인간의 육체적인 구원을 성취
하기 위해서 지상에 육체로 태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합
니다. 이에 근거해서 문선명 자신이 재림 주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은 나사렛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
으로써 성취되었습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
림하실 때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금 육체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문선명은 완전한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결론

통일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주장을 서슴치 않지
만, 실상은 그 주장들은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원리
강론의 가르침들은 핵심적인 모든 교리에 있어서 성경
과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계시의 완성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문선명은 마땅히 거짓 선지자로 정
죄받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
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 7:15-16).

지체들 소식

▶ 영아부

지난 주일(4월 26일) 새천주초청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날 영아부는 7명의 새로운 엄마와 아가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밝고 예쁜 아가들이 충현교회 영아부에 등록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아부는 새 친구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가들을 위한 신앙 상담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전화 552-8200, 한영준 전도사). (송혜경 통신원).

▶ 유자부

"너희는 먼저 / 그의 나라와 /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 주 선생님들이 들고 계신 낱말판을 바라보는 유자부 어린이들의 시선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낱말판의 순서를 바꾸어 놓아도 다시 말씀대로 큰 목소리로 잘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신에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유자부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산의 큰 나무로 말씀을 먹으며 더욱 푸르려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인혜 통신원)

▶ 유년부

유년부가 '단위 가족'으로 모이는 각파의 자랑을 이번 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매주일 소개하는 선생님 모두를 알려드리고 싶군요. 먼저, 분명한 성경에 무엇이나 정확할 것을 좋아하시는 1파의 신장 김금순 과장님과 함께 항해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잘생긴 외모처럼 포근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김순기 선생님(1년). 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꼭 꼭 소독료 교육하시는 깔끔한 성

격의 이영숙 선생님(2년)이 계시지요. 그리고 박귀현 선생님(3년)은 세심한 성격처럼 무엇보다 정확할 것을 좋아하시구요. 황영림 선생님(4년)은 옥자를 부릴줄 모르는 맑은 목소리로 웃음을 꽃피게 하시는 분이요. 율동을 할 때는 팔팔팔팔 나비를 연상시키는 어여쁜 숙녀 장지훈 선생님(5년)과 성극에서 예수님 역이 맛을 볼 것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복사하시는 김열린 선생님(6년), 마지막으로 먼 곳에서 정확할 시간에 오시면서도 100% 출석반으로 이끌어 가시는 정인자 선생님(7년)이 계시답니다. 이렇듯 유년부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님과 유년부 어린이들. 그리고 1학년 어린 친구들 군사들을 가르치는 1파의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이지요. (강원주 통신원)

▶ 중등2부

울분 날 때는 유난히도 변화가 심하다. 개나리와 진달래도 그 날씨 탓인지 아름다운을 느껴볼 여유를 주지 않고 지는가 싶더니 어느덧 절가의 가로수의 푸른 빛으로 여름을 앞둔다. 푸르고 빛이 나는 그 잎파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느낀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 가끔은 주님의 부활도 느껴본다. 그런데 어찌나 누군가에 의해서 꺾어진 가지를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행여 하는 마음에, 꺾어진 가지를 테이프로 붙여 보기도 한다. 간혹 어린이처럼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 중등2부에 그 꺾어진 가지가 된 친구들이 있다. 하나는 이제 막 예수님의 치유의 테이프를 붙이고 우리 앞에 우뚝 선 조요한 친구요. 또 다른 하나는 일파신에 주께서 테이프를 붙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조영

하 친구이다. 우리 모두 어린이아이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꺾어진 가지에서 느꼈던 사랑의 주님을 느끼면서, 그리고 새로 나온 잔술, 한술 형제와 자존이도 우리와 하나 되어 주님 섬기기를!(나성애 통신원)

▶ 고등부

5월 4일 저녁부터 5일 정오까지 이틀간 충현기도원에서 교사 영성훈련 및 기도회를 가진다. 대상은 고등부 교사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교사 가족 모두가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는 데, 1학년은 학생 영성훈련, 2학년은 학생 관리, 3학년은 분반공부 준비와 학습 진행을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 외에도 전교, 기도회 등을 통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영적 힘을 풍성히 얻을 수 있리라 기대된다. (이현정 통신원)

▶ 청년2부

5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충현기도원에서 1일 가족수련회를 실시한다. 30대 미혼 청년 및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강사 이형수 집사)과 부부의 행복분들기(강사 전철준 목사)에 대한 특강과 교제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30대 청년들과 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장년1부

다음 주일(5월 10일) 낮 12시 20분 교목관 407호에서 부부 초청 모임을 실시한다. 이날 강사는 박형용 목사로,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이라는 주

제로 특강을 한다.

▶ 신혼가정부

오는 5월 17일(주일) 오전 10시 50분 교목관 201호에서 '크리스찬 부부의 결혼 만족도'(강사 김희수 목사)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 1교구

주안교회 사장을 나누던 장 집사님이 소절하셨다. 남달리 가장으로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믿음 생활에 충성하신 집사님. 거룩한 성령의 전인 몸의 통종도 거두어가시고, 정결케 준비시키시더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도 고통도 없는 열렬한 분향으로 불러 가셨다. 이 세상에 누군들 거쳐 왔다가 거쳐 가는 사람이 있으랴. 한 알의 밀알이 낫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열매를 맺고 정령 떠나가야 할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내일 일은 우리가 잘지 못하며, 잠깐 보디가 없어지는 안개로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소망 안에 기쁨을 가지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사랑을 품는다. 모든 육체는 썩으며,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영영히 말씀 위에 서리라. 맑고 깨끗한 날 밝인과 하얀예배가 찬송 속에 치러졌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세상 각방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기쁜 날으로 서로가 대하며 즐거움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세! 이 집사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철쭉과 해진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 (임복호 통신원)

탐방 - 예배위원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원회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보다 신령하고 진실되게 드리지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서이다.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미려한 것까지 신경을 쓰며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이 정말 많다. 위원장 김재명 장로와 지도 박경환 목사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는 안내부, 예배 중 헌금을 걷는 헌금부, 성찬식과 세례식을 준비하는 성례부가 있다.

한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4명과 장로님 6명, 그리고 안내위원은 평균 30-40명, 헌금위원은 100여명이 배치된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들은 예배 30분 전에 예배위원회에 모여 기도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5부예배가 끝나면 예배위원들이 모여 하부를 점검하고 기도로 하부를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배실에서 성도들을 안내하는 일과 헌금을 걷는 일,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강단 위의 꽃 장식이나 설교자를 위한 음료수, 물수건 등을 올바른 위치에 알맞게 준

비한다. 또한 예배실의 음향과 조명도 다른 것들처럼 100% 준비되도록 점검한다. 성찬식과 세례식도 이곳에서 준비를 한다. 흙수달 첫째주에 거행되는 성찬식을 위한 준비는 성찬식 전날 오전 10시부터 분당에 있는 성찬준비실에서 100여명의 권사님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때를 쉼과 찬을 드신다. 성찬식을 준비할 때 성도들의 참관이 가능했는데, 성찬 준비 모습을 참관한다면 성찬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개월마다 거행되는 세례식은 3주 전에 신청을 마감하고 2주 전에 교육과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도록 준비한다.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분당 1층 안내석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마련하여 빌려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예배를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보이다. 주보를 보고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찬양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주보에는 예배에 필요한 것들만 담아 놓도록 했고 앞으로

형식이 엄박하지 않고 변화하는 주보를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김성관 위임목사님과 한달에 두번씩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예배위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예배 전 찬양을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먼저 성도들은 나중에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앞과 석가운데부터 자리를 채워 주었으면 좋겠다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핸드폰과 무선출금기는 반드시 끄고, 어린 아이들은

가능하면 탁아부에 맡길 것도 간절히 당부한다고 한다.

예배위원회는 오늘도 원로목사님과 위임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생활 전체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교 회 소 식

● 알림

1. 성신성 / 오늘 1, II, III, IV, V부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2. 제2차 학습 및 세례를 위한 교육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를 받은 성도는 아래 교육 일정에 참석하시라, 유아세례 교육은 10일(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 오늘 학습(교육관 314호) : 1교시(1500-1550) 기독교 개요(김진석 목사)
2교시(1600-1650) 성경 개요(정현민 목사)
· 오늘 세례, 개종, 입교(교육관 307호) : 1교시(1500) 세례관전(김병대 목사)
2교시(1600) 교회론(정현종 목사)
· 학습, 세례식: 5월 17일(주일) 찬양예배시, 본당
· 유아세례식: 5월 17일(주일) 15:00, 갈릴릴

● 모임

1. 정기대회 / 6월(수) II부예배 후, 당회실
2. 장로 회교세벽기도회 / 5월(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4. 남녀전도부 각 구역 연합회장,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
5. 실업인전도회 - 군전도회 - 교정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일 15:30, 사방부실
6.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7월(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7. 경찰전도회 월례회 / 10월(다음 주일) 15:00, 칼빈홀
8. 13교구 협의회 / 8월(금) 17:30, 칼빈홀
9.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10. 안수집사회 월요세벽기도 성경공부 / 4월(금)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11. 권사회 제1회 월례회 / 6월(수) I부예배 후, 사방부실

● 남녀전도회

1. 베드로 1 / 9월(토) 19:30, 윤찬원 집사대(556-0841)
2. 한 나 6 / 12일(화) 10:00, 남한산성 옛성토
3. 한 나 12 / 10월(다음 주일) 15:00, 교육관 212호
4. 한 나 14 / 10월(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만나홀
5. 에스다 6 / 12월(화) 11:00, 올림피아공원 복2동 앞

● 결혼

1. 임영준군(나금운 집사의 아들, 제13교구)과 김희경양(김동혁 씨, 김한나 성도의 딸) / 5월(화) 12:00 갈릴릴
2. 박동식군(박기순 씨, 이순애 씨의 아들)과 정미영양(장봉순 안수집사, 이광일 성도, 제12교구) / 5월(화) 13:30 영동로 목회예배장 본관 4층 독실
3. 정준홍군(장재봉 집사, 김한진 권사의 아들, 제14교구)과 박정윤양(김옥희 씨의 딸) / 5월(화) 13:30 배당길 1층 주부방
4. 이종희군(백인자 권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최수경양(최석수 집사, 김영희 집사의 딸, 제12교구) / 5월(화) 14:00 갈릴릴
5. 김덕민군(김용식 안수집사, 한정심 권사의 아들, 제6교구)과 유혜림양(유필균 장로, 박순희 권사의 딸) / 7월(목) 13:00 갈릴릴
6. 김현수군(김진석 씨, 이순애 씨의 아들)과 최수영양(최성국 집사, 정순자 집사의 딸, 제11교구) / 9월(토) 13:00 용산구민회관
7. 이종서군(이기용 성도, 이창자 성도의 아들, 제3교구)과 한민영양(한순자 씨, 정영희 씨의 딸) / 9월(토) 14:00 햇빛산교회당 회파성전

● 별 세

1. 장주식 안수집사(이경숙 집사 남편, 제1교구 총현8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2. 조영민 성도(장경옥 집사 모친, 한성호 성도 장모, 제6교구 거여2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3. 윤형희 집사(신병관 성도 아내, 신득진 성도 모친, 임은아 성도 시모, 제6교구 가락마리2구역) / 25일 별세, 27일 장례

● 주 소 및 전회번호 변경

1. 안병호 안수집사, 김숙자 집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동동 506-6, 전화번호 : 0342-723-6210

금주의기도제목

1. [1] 성신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관용과 속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2] 근근절약의 내핍생활을 실천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장학학생이 하나님과 사할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3]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일꾼 양성에 온 정성을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4. [4] 학습, 세례, 업교, 상담을 받을 이들이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5. [5]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6. [6] 모든 성도들과 기원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소서.
7. [7]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열려서 하소서.
8. [8] 민족과 나라의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활발하게 하소서.
9. [9]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모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광일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이종환 정형준 김재철 이숙수 정갑진 정현민 조봉환 조준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숙하 정태성
- 협동목사 윤영락 박용환 노봉린
- 선교사 이윤규 안석원 김영태
- 감도사 이준경 박노현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창남 정복인 장영자 최태우 김정자 배옥인 최희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수 한복순 김복순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기인 열현일 한승일 이광관 김영기 송원식 김창종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우환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희희 배대양
- 평신도전도사 유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06	오은석	3	예배대부		814	김지호	19	청년2부		821	김홍기	19	청년1부	
807	이강호	19	청년1부	이문구(15)	815	남수희	19	대학부		822	이명환	19	대학부	
808	신수미	19	청년1부		816	조성환	19	대학부		823	천 은	19	대학부	
809	장은호	19	청년1부		817	최수윤	19	고등부		824	오세경	19	대학부	
810	이재오	19	청년1부		818	오창훈	19	대학부	오주희(19)	825	천명록	19	청년2부	
811	이전도	19	청년1부		819	한세화	19	대학부	한세희(19)	826	김현태	19	청년1부	
812	배병철	16	청년2부		820	유영선	19	대학부						
813	이민정	19	청년2부	석귀구(13)	821	김민지	19	대학부	김민희(194)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 주일오후기도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복음운동으로

총현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 주일 오후 기도회가 그것이다.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부 예배실(교육관 107호)로 하나, 둘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 IMF 경제위기 기도에 극복하자'는 주제로 현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도회이다. 우리 앞에 닥친 국가적인 위기와 당면한 고통들을 기도회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다.

총현교회에는 그동안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변화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회개를 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다.



기도회는 3백여명이 참여하여 한 시간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기도 중에 흐르는 눈물을 주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처음에 전도원회 산하 실업인전도회에서 시작하게 된 기도회 전도회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성도들의 마음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으며 나라는 민족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은혜로운 기도회로 뿌리 내리려는 것이다. (이홍성 목사, 1교구·실업인전도회 지도)

5월 10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비이클린 문혜경(피아노 / 김남숙) (찬양곡목)
· 이 세상 끝날까지(한 448장) · 여의대 동인(한 336장)
· 내 주여 뜻대로(한 43장) · 오 신실하신 주(한 447장)
· 구주 나를 위하여(한 465장) · 다시 사신 주(한 151장)
- ◆ 3부예배 소프라노 김순자(오르간 / 김남숙) (찬양곡목)
· 나 근심 걱정 말라(한 432장)
· 기쁨 찬가 · 남미다 주와 비성(한 333장)
- ◆ 4부예배 소프라노 김희숙(피아노 / 김남숙) (찬양곡목)
· 엘리랴라 고대(한 440장) · 나 주의 도를 보고자(한 349장)
· 예수 나를 위하여(한 144장) · 아름 해가 뜬(한 358장)
- ◆ 5부예배 소프라노 박현주(피아노 / 안선영) (찬양곡목)
· 뜻있이 주를 찬양(한 515장) · 나의 백성이 · 주기도문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너라
(빌립서 1:21)

주관총현

발행처: 대한하나님교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아버이주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딤후 5:4)

가정의 달 아버지주일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예리할수록 그것은 사회의 영적 퇴보를 의미한다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들어서 부역 부모의 역할에대한 강조가 계속되는 이유는 가정 내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신명된 증거일 수 있다. 사실 그렇다. 수년 전 돈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관한 보도를 비롯하여 수일 전에 보도된 아버지가 자식을 폭행 살해하여 집 앞마당에 묻은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은 이러한 가정 파괴의 단면을 말해 준다.

실제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포함시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였는가? 그리고 부모 공경의 대가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모 홀대의 대가로는 저주를 선언하신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흐름이 부모를 통해 이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점으로 하는 영원한 가족의 모델을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 조건없는 사랑과 성실한 순종과 희생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복케 하시는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화복 안으로 들어가 각 가정에서 세대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오늘 아버지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및 몇 부서들에서는 '부모님께 편지 쓰기' 및 학부모 특강 등의 행사들을 실시할 예정이고, 장년3부에서는 김희수 목사를 강사로 '자녀에게 효도하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을 계획이 있다. 충현의 지체들은 이러한 행사들과 더불어 앞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세우기 등을 표현하고 기릴 수 있는 좀 더 실제적인 사역들이 각 기관과 부서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즈음에 가정에서부터 예수 신앙의 순수함을 가정의 화복과 견고한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겠다.

전국 목사장으로 기도회

내일부터 14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수요1부예배는 갈릴리움에서

내일부터 14일까지는 우리 교단 전국 목사장으로 기도회가 본당에서 거행된다. 이에 따라 수요1부예배는 갈릴리움에서, 2부예배는 본당에서 함께 드리게 된다. 한편 주간성경공부 및 구역장·부지역장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남성도 구역장 훈련은 목사장으로 기도회가 늦게 끝나는 관계로 한 주 휴강하게 된다. 한편 20일(수) 남성도구역장훈련은 김성관 성도목사가 영성훈련으로 진행한다. 위도목사는 전국 목사장으로 기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기도를 통한 교단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장학위원회

후원자 기도회

지난 4월 30일(목) 저녁에는 도서장학회 후원자(일명 '가이오 회합') 요삼 14월) 및 충현소석장학생 후보자 연석 기도회가 반나을 및 잠빈홀에서 있었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서 김창진 원로목사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 공부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후원자 및 장학생 후보생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정현민 목사(도서장학회)와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교회와 민족 및 자신의 영성 회복을 위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사기를 위해 한바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소석전역장학생 후보자들에게는 소속 부서장 및 지도교역자들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7일(토)에 필기 및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며 8월 24일에는 위임시험을 통해 최종면접을 하게 된다. 장학위원회는 9월 9일의 당회에서 최종 장학생을 확정짓은 후 9월 13일(주일) 천양예배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98년도 단기선교 일정 및 방문국 확정

6월 중순~8월 초 수단 등 6개국으로

그동안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청년1, 2부에서 준비해온 1998 여름 단기선교의 일정과 명단이 지난 5월 6일 당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일정은 대략 6월 20일 경에서 8월 11일 사이로 잡혀 있으며, 방문국은 수단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인도, 그리고 몽골과 중국 등이다. 전체 팀은 중국 세 팀을 포함하여 총 8개 팀이다. 선교위원회의는 금번 단기선교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했다. 1) 단기간의 해외 선교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선교의식을 강화하고 선교의 노후를 축적한다. 2)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향후 더욱 구체적인 중단이 선교네트워크를 수립한다. 3) 현지 선교사의 사역에 협력하여 현지의 선교사도 대를 강화한다. 4) 단기 선교준비 및 실제활동을 통해 전 교회적으로 선교 마인드를 공유한다.

선교위원회는 이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지도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전도에 필요한 현지언어를 습득케 할 계획이며, 방문지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팀원 간에 충

분히 연구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현지 상황에 따른 적응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중단기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품고 있다.

올해의 단기선교는 예년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특별히 없으나, 예년과는 차별화된 선교정책 실행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단기선교사 7천명 파송을 위한 원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이에 따라 올해의 단기선교가 향후 정책의 주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단기선교를 위한 전교회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모든 준비과정을 통해 장단기적인 선교교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금번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진행되는 선교의 불길은 이 교회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방문국	수 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 도	몽 골	중국1	중국2	중국3
담당	선교위원회	대학부	청년1부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	청년1부	고등부
기간	6. 27-7. 10	6. 25-7. 4	7. 22-7. 29	7. 21-7. 31	7. 28-8. 4	6. 20-6. 29	8. 8-8. 11	
지도	이승수	박경한	김희수	김동하	김정환	이종찬	조완한	
단장	이창호	이종국	신광식	윤인현	송한창	이갑재	임무현	
총무	박태양	정희홍	송원식	김영길	한은배	이신동	동지현	정성기

모국 방문 임या인

민박 가정 신청

국외로 임या되어 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합니다. 임या인들이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을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에 민박할 가정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초청일시
1998년 7월 4일(토) 오후 2시 -
1998년 7월 5일(주일) 오후 2시

신청방법
선교위원회(전화번호 4063)로 직접 신청

접 수
5월 3일(주일) - 5월 10일(주일) 오후 5시
문의 : 552-8200 (교현) 356

마음 바꾸기

서강과 신씨만으로도 충분한

'스승의 주일' 지키기

다음 주일(5월 17일)은 스승의 주일이다. 스승과도 귀한 기념주일이이다. 값없는 아들과 현신의 맘을 흘리시는 교회학교의 모든 선생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

하지만 선생님들 향한 신뢰와 사랑이 몇 가지 선례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가족이나 지출이 많은 5월에 조들린 마음으로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 험거한 선물을 준비를 하느라고 생강하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와 염서로도 충분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금주의 구역 영성훈련
5월 12일(화) 제 15교구
5월 15일(금) 제 17교구

98년도 제2차 학습 세례식 5월 17일 실시

오늘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5월 17일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5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5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구스에 대한 경고

(이사야 18:1-7)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경만 하시고 악한 자와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추수하기 전에'란 원수가 승리하기 전에, 원수들이 일을 끝내기 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

본 문은 당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던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구스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예언은 10년이 못되어 성취되었습니다.

1. 구스에 대한 예언의 배경이 어때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에 구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군사력이 막강하고 애굽까지 지배하였으니 전 아프리카에 그 세력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구스가 큰 변을 만난 것처럼 설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앗수르가 북방에서 일어나 큰 나라 수리아를 삼켜 황무지가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도 멸하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앗수르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본 구스 왕은 마음에 격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북방의 대국 앗수르가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을 삼켜 버리고 이제 유다까지 삼키려고 덤벼들 것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네와 연합하여 당신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군대를 보내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네가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다만 절대로 앗수르에게 항복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구스의 사신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 돌아가라고 하였습니까

"너희는 ...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2절) 해 본국으로 빨리 돌아 가라고 합니까?

"술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1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란 자유가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날개치는 새'는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합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는 구스 백성아,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며 여기까지 사신을 보냈느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2) 감성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까

"...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조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밝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2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말은 비옥한 구스 땅을 극찬하는 표현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대적을 밝는 백성'이란 말들은 구스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나라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사야는 침략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나라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까.

(3)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라고 하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로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이다"(3절)

"비옥하고 장대하고 강성한 너희는 돌아가서 가만히 있이라, 군대를 훈련시키지 않아도 되고 비싼 식량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사신을 여기 저기에 보내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 휘날리는 깃발은 앗수르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면 된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스의 말을 주어 사자들을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였습니까. 이사야는 구스와 유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기호를 보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 구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 앗수르를 멸하고 구스와 유다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구스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① 일단 앗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소에서 중용히 감찰함이 죄이는 일만 같도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4절)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당장 처치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비치는 햇빛 같고 가만히 내리는 이슬 같습니다.

② 그러나 앗수르가 승리하기 전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히기 이전 때에 내가 낫으로 그런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쪼개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거처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파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파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5, 6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경만 하시고 악한 자와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추수하기 전에'란 원수가 승리하기 전에, 원수들이 일을 끝내기 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 구스에 대한 예언이 어때합니까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조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밝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7절)

이 말씀은 앗수르의 발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스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년이 못 되어 앗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루 밤에 18만5천명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구스에서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에 떨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어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그날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쳐다 보았으니 홍해를 앞에 놓고 범피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추수하기 바로 전 시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장에 죽지 말고, 의인인 한 번, 두 번 역용함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리 대세를 하여도 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구경할 일이 없습니다.

셋째로, 환난이 원신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하고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환난이 온다고 하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 다니는 안위는 없습니다.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일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구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김성광 목사

농부와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1-2)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살피 주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키시는 농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 축복된 추수를 거두게 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도록 정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람답고 풍성한 포도나무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무의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록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벌들과 하늘, 바다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셔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잘 돌보아 주십니다.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야 뛰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이다"(사 27:3).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키고 살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초를 뽑아 주시고 토양을 기름지게 하시며 어떠한 해충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땅에 손수 심으신 포도나무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십년 동안 땅아 생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잘 돌보아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된 그들과 남마다 함께 하시고 먹이시며 지키시고 온전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쓸모 없는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직 과실을 맺는 가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니라"(2절).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농부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동시에 조심스럽고도 가차없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가지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다워 겪는 고난의 이유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

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께서 그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4절).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자신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게서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7절).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가 믿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14:10).

하나님은 농부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으신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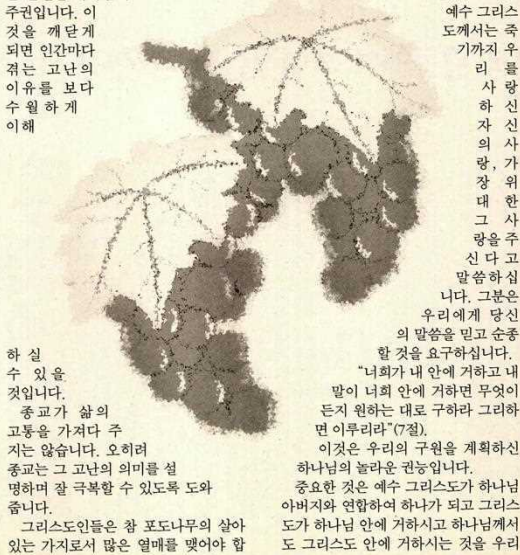
"내가 비유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이다" 큰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17:20-24).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살피 주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키시는 농부이십니다.

농부되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생명이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많은 과실을 맺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선교 정보 나누기 - 인도

이상한 나라 인도

이제는 이 나라의 엄청난 특징을 파악했다 싶어 지주의 나라, 굽주림의 나라, 기대한 환상의 나라 등의 단어를 붙여 보았다. 그러자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 새로운 형용사를 붙이게 하는 이상한 나라 인도.

석가와 타고르와 간디와 테레사 수녀가 살던 나라, 힌두교와 모슬렘이 공존하는 나라, 신비와 과학이 함께 역사하는 나라, 생명과 죽음의 서로 꼬리를 무는 나라. 이러한 천의 얼굴은 인도의 특징이다. 다양한 속에 온갖 모습으로 두엄켜 힘겹게 지탱되는 나라. 그래서 이런 인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아시아를 이해한 것이라까지 말한다.

인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13.8배로 남아시아와 인도양에 걸쳐 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며 전체 인구의 16%가 인도인으로 이들은 지표면의 2.4%를 차지하며 살고 있다. 2020년에는 거의 13억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다. 4,635개의 집단 혹은 종족집단이 있으며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인도처럼 미친듯 종족이 다양하고 집중에 있는 곳을 볼 수 없다. 노동력의 74%가 농업에 종사하나,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주 변국인 파키스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끊임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인들에게는 자연이 곧 신이다. 그들의 신은 하늘과 땅과 공간에, 그리고 물 속에 거주한다고 믿고 있다. 태양 신사, 바랍신 바유, 천둥의 신 인드라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억 3천



만개가 넘는 집단을 만나기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도인들은 환생을 믿는다. 구걸을 위해 자신의 멸망한 다리를 철길 위에 얹어 놓고 절단한 사람이 있었다. 선교사가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다들 세상에서는 더 좋은 계층으로 태어나면 되지 뭐"라고 말한다.

전 인구의 82%인 6억이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회교도가 9천 8백만명으로 약 12%, 기독교가 2천만명으로 약 2.6%(그 중 카톨릭이 1.3%)이며 그밖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 종교의 다양성을 가진 나라이다.

영국이 인도를 1700-1947년까지 247년을 다스리면서 얻은 인도 기독교인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지 못하고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그 중 한 가지가

인도에 1,660개의 언어가 있어 선교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65-75%에 이르는 문맹률은 문서 선교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거기다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카스트 제도(출생에 따라 일정한 계급에 속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속한 계급에서 떠나서 못하는 신분제도)는 복음이 인도인들의 마음 속에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오늘날 풍요의 여신이 강으로 변하여 나타났다는 캔디강에 몸을 담그며 영적 정화를 위해 이 물 속에서 목욕립니다. 오물과 각종 병원균이 가득한 캔디강 강물에 잠겨 있는 인도인들을 위해 과연 풍요의 여신은 지금 몇 무엇을 주었는가.

아르놀드와 로서 가정에서 생긴 일

수리남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들 중 하나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아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세례를 베풀기를 위하여 광고하고 준비하는 중 아르놀드와 로서 부부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나를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식결혼을 하지 않아 세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즉석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법적으로 필요한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등기소로 가서 싸인을 함으로 아르놀드가 53세에, 그리고 로서가 47세에 정식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들은 모두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군복무중 말라리아로 사망하였고 딸 에스더는 간질로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놀드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아 알게 하시고 말함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들 임로와 간질로 힘겹게 살아가는 딸 에스더, 그리고 아르놀드 부부는 4월 5일 세례를 받았습니

다. 이 귀한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수리남에서 안식월 선교사)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보여지는 선교 전략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롬 15:23)

초대 교회 최고, 최대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마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선교는 “성령이 불리 시키는 일”로써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해야 한다(행 13:2, 3).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활동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연구해 볼 때, 인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선교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동역자와 함께 일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팀 선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써 각 지체를 관장하시, 성령의 은사로써 선교 사역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조하시는 것이다.

둘째, 지역 교회 설립 후 반드시 토착 지도자를 육성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토착 목회자가 확실히 육성됐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 설립 이후에는 곧 미복음화 지역으로 옮겨갔다. 순수한 복음이 심어졌 후 열매 맺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씨를 뿌리려 간 것이다. 그 씨가 발아하고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였으며, 사도 바울 자신은 후에 각 교회를 다시 순회하거나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각 지역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왔다.

넷째, 말씀 선포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구체사업이나 부패한 생활 양식, 철학적 비판과 토론 따위의 지역적 특성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모든 것은 복음전파보다 우선시 되지 않았다. 말씀이 먼저 전파되면 다른 모든 요소들은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선교 전략의 토대는 역시 ‘성령 충만’이다. 다른 모든 교회 사역이 성령의 섭리 가운데 행해져야 하지만 영혼 구제 사역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일

1. 단기선교 준비위원 모임

대상 : 각 팀별 지도, 단장, 총무
일시 : 5월 15일(월) 저녁 6시
장소 : 만나홀

2.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월) 이집트 이슬교 선교사
6월 중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화) 수리남 안식월 선교사
마마(Mama)의 인도인 사역을 위해서

수) 수단 김영대 선교사
회교도들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목) 여를 단기선교 사역을 위해서

금)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토) 주일 선교위원회 사역을 위해서